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7p, 중고선가 지수 89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7p(-1p, WoW), 중고선가 지수는 89p(-2p, WoW)로 전 주 대비 하락함. 현대미포조선이 Eastern Pacific Shipping으로부터 40,000CBM급 LPG선 3+2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2년 4월까지로 알려짐. 대한조선은 Neda Maritime으로부터 115,000DWT급 LR2탱커 1+1척을 수주했고 납기는 2021년 말까지로 알려짐. (Clarksons)

Hyundai Heavy wins \$228m Sonangol suezmax tanker contract

현대삼호중공업이 앙골라 국영 석유기업 Sonangol로부터 157,000DWT급 수에즈막스 탱커 2+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옵션분까지 모두 합하면 2.28억달러 규모의 계약이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LNG 이중연료추진으로 알려졌으며, 확정발주분 2척의 납기는 2021년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수은 지원금, 보조금 아니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 조선업계에 대해 지원해 주기로 한 자금은 정부보조금이 아니라고 보도됨. 외신은 수출입은행이 지원해주기로 한 자금은 1년 만기 단기 자금으로 인건비, 자재 구입비 등 운전 자금일 뿐이며, 팬데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올 여름 LNG 해상 저장 물량 급증

올 여름 유럽 지역의 육상 LNG탱크가 가득 참으로써 해상 저장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됨. 유럽은 LNG수입 물량이 급증하는 10개국 중 8개국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유럽과 달리 대형 LNG 저장 시설이 부족한 아시아지역의 LNG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스윙 수입국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LNG 시장, 하반기에 기대

현재 LNG선 스팟 운임은 1일 운항 비용을 밀들고 있고, 화물 선적 취소와 가스 가격 하락이 운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계절적으로 북반구 겨울철이 오는 10월이나 11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미결프-극동 아시아/북유럽 항복 항로 운임은 하루 15,500달러로 지난해 9월 이후 98% 하락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채권단 '두산重 지원' 얼마나?...'자산매각'에 달렸다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두산중공업에 채권단이 1조원 가량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보도됨.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의 전환과 재무구조 개선 등이 포함된 두산중공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용한 결과라고 보도됨. KDB산업은행(산은)과 수출입은행(수은)은 6월 1일 각각 신용위원회와 확대여신위원회를 열어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추가 자금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머니투데이)